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 교리의 허위

1. 십계명 위배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20:3절)

나(여호와 하나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요 17:3)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졌다. (출 23:21, 히 1:4)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그 이름이 적용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그러므로 우리는 두 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두 분이 아닌 세 분을 경배하므로 첫 번째 계명에 위배된다.

둘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4~6절)

금과 은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사상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성령 하나님)을 (겔 14:4 참조) 모시고 있으므로 둘째 계명에 위배된다.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7)

존재하지 않는 신(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됨.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2)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신 5:15)기념일이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히 1:2) 또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두 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세 분에게 헛되이 경배하므로 넷째 계명에 위배된다.

2. 세 천사 기별을 왜곡시킴

계 14:6-12 절에는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대한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들이 기록 되었다.

첫째 천사 (계 14: 6-7 절)의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 포함되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두 분의 희생이 아닌 세 분의 희생으로 둔갑시켜 **다른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그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 17:3)를 두려워하며 그분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요청이 있다. 두 분께서만이 창조(히 1:2)에 관련하셨으므로 **두 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경배의 대상이 세 존재가 되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조사 심판**이 언급되어 있다. 단 7:10-14절에 의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인자 같은 이**”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두 분께서 조사심판**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천사(계 14:8 절)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한다. 모든 비 성서적인 교리들, 즉, 삼위일체 교리,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연옥설, 죽은 자 승배 등등 모든 비 성서적인 거짓 교리들이 무너졌음을 지적한다.

셋째 천사 (계 14:9-12)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 것과 그의 표를 받지 말 것을 당부한다. 여기서 짐승은 왕국, 정권 혹은 정치 세력(단 7:23)을 의미한다. 이 짐승은 종교와 정치 세력을 힘입어서 성경 상 근거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요일에 경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계 13장 참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계 16장)이 임할 것이다. 이 진노의 일곱 재앙은 과거의 어떠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무서운 재앙들이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3. 다른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 1:1-3, 14, 18; 3:16; 갈 4:4, 롬 8:32, 잠 8:24,25)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세 하나님이 다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 아들 되심을 부인할 뿐 아니라 친 부자를 관계를 부인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2)

4. 다른 영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레 19:2) 그분의 영도 거룩하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다 (롬 8:9, 고전 2:10-11).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하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되어 버렸다.

5. 실제적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하시킴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히 1:1-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8T 268)

요한복음 3:16 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이 분명한데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세 하나님이 동등하고 예수님은 그 세분중의 한분이 되어버렸으니 참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가치를 내어 던져 버렸다.

6. 참된 구속의 경륜(계획)에 (슌 6:13) 관한 이야기를 두 분이 아닌 세 분으로 왜곡 시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DA p.834)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PP p. 34)

7. 혼란스러운 관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그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했을 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시는 두 분이 아닌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8. 눅 1:35 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성령이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9. 속죄의 가치를 저하시킴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하고 다만 인성이 죽었다고 하므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다만 인간의 희생제물 뿐으로 보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듦 (요일 5:10)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성경절들이 많이 있다. (요 3:16, 롬 8:32, 갈 4:4, 요일 4:9,15 등등.....). 그 이외의 수많은 성경 절들은 두 분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11.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무능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이 없으신 분들로 만든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시다 (창 1:2, 시 139:7, 렘 23:23,24, 눅 1:35, 요 6:63, 계 5:6.....).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께 돌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능하게 되어버린 격이 되었다.

12. 성경에 기원을 두지 아니하고 이교의 신화에 기원을 둠

이교의 신화는 루스벨(사단)의 타락에 기원을 두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2-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4-17)